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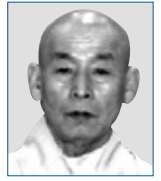
관음종 죽산 스님 입적 1주기 범회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은 11월 12일 낙산 묘각사 원통보전에서 죽산 스님 입적 1주기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해담 스님 군법당 지원 조계종 재심회계위원 해담 스님은 11월 9일 아름다운동행에 논산 군법당 건립 기금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수국사 주지 원담 스님 재임명 前 조계종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11월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으로부터 수국사 주지로 재임명 받았다.



법화종 대구·경북총무원장 취임 도광 스님은 11월 8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법화종 대구·경북교구 제1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지성 스님, 태고종 동부총무원장 서울 승가사 주지 지성 스님은 11월 18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태고종 서울동부교구 제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다.



이기영 교수 추모회 이민용 한국불교연구원 원장은 11월 6일 유마정사에서 연구원 창립자 불연 이기영 교수 15주기 추모회를 개최했다.

<인사> 순천 선암사 관리인 현담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9일 직영사찰인 순천 선암사 관리인에 총무원 총무국장 현담 스님을 임명했다. 임기 2년 보장과 중앙총회의원의 직영사찰 관리인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직영사찰법 개정 이후 첫 직영사찰 관리인 임명이다.

자승 스님은 현담 스님에게 "조계종과 태고종이 함께 재산관리권을 인수해 운영하는 만큼 분구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소통하고 화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담 스님은 "조계종 직영사찰로서의 역할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국제 기능 담당하는 교구본사로

제주 관음사 신임주지 성호 스님

"세계 7대 경관 선정을 앞둔 제주의 국제 기능을 반영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교구본사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

11월 8일 제주 관음사 주지에 임명된 성호 스님(사진)은 "제주도는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도시로 발돋움 할 제주의 환경에 맞춰 관음사가 제주불교의 축으로 문화도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호 스님은 그보다 먼저 관음사가 제주불교의 중심축이자 기도수행처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수행·나눔·생명·평화·문화의 5대 결사를 기치로 관음사 내 도량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신도 교육시스템 강화로 본사 신도조직도 정비할 예정이다. 국제화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제주도 환경에 맞게 외국인 대안학교 건립도 모색하고 현재 관음사가 운영 중인 복지시설 3곳도 시설 및 인력·프로그램 확충에 나선다.

스님은 "본사가 본사의 역할을 다해야 지역 불교가 살아난다고 본다. 종단이 진행 중인 5대 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불교는 섬 특성 상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크다. 이에 대해 스님은 "본사 위상 고취와 함께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피겠다. 지역 불자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화합도량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불심을 결집하기 위해 스님은 이례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12월 16일 전임 주지 이·취임법회도 열 예정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명식에서 "본사의 면모를 갖추고 제주불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 전심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성호 스님은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총무원 제정국장, 문화국장, 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조계종 소청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조계종 중앙총회 사무처장 맡는 등 행정 실무직을 두루 거쳤다. 조선의원 최초로 법규위원이 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밖에 뉴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광주불교 화합과 발전을 위해"

신임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해향 스님

광주불교를 이끌 제21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에 향림사 주지 해향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해향 스님은 당선 일성으로 "연합회를 불교단체의 구성점으로 삼아, 합리적인 화합을 이뤄내겠다"며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향 스님은 "이번 성도재 일을 기해 광주불교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겠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는 △연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쌀 전달 △교도소, 경찰서, 각 시·구청, 운불련 등 각 불자회 법회 활성화 △노인복지, 아동복지사업 개발 △불교신학단체와의 공동행사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를 12개 부서로 구성하고 종단을 초



월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신임회장 취임식은 2011년 음력 12월 8일인 2012년 1월 1일 열린다. 이날 행사는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이 법문하며 아시아 6개국 전통무용이 펼쳐진다. 특히 다문화 가족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해 부처님 성도를 축하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치보시로 부처님 법 전해요"

도봉구 서원암 주지 반야지 법사

"제 삶이 끝날 때 까지 소의 계층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서울 도봉구 서원암이 김장철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장 나누기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원암 주지 반야지 법사(사진)와 40여 봉사자들은 11월 3일부터 김장을 시작해 1만 3000포기의 김치를 도봉구 일대를 비롯한 의정부와 포천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반야지 법사는 25년 전부터 김치 보시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7월에만 1만 5000포기의 김치를 전달했다.

반야지 법사는 "불교의 자비심은 무량공덕의 근원이며 수행의 근본이다. 그래서 중생들이 행할 수 있게 봉사의 장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서원암은 이밖에도 매주 화요일 300여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반야지 법사는 "처음 봉사를 시작하고 7년 정도는 혼자서 봉사를 했다. 힘이 들어 중



간에 포기할까 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부처님의 참 진리를 실천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25년 동안 이 일을 진행해 오게 됐다"고 말했다.

반야지 법사는 이번 공덕으로 2010년 10월 서울시 봉사상 최우수상을 비롯해, 10여개의 각종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반야지 법사는 "묵묵히 옆에서 맡은 일을 행하는 보살님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오고싶은 도량으로 만들겠다"

남양주 봉선사 신임주지 정수 스님 취임

남양주 봉선사 제14대 주지로 정수 스님(사진)이 11월 9일 취임했다. 정수 스님은 이날 주지 진산사에서 조계종 수도권 교구본사로 역량 강화의 뜻을 밝혔다.

정수 스님은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면서 봉선사를 오고 싶은 도량, 밝고 싶은 도량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실 월운 스님은 "식견, 경현, 행정력을 심본 발취해 소임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회주 밀운 스님도 "교구장은 힘이 드는 직책이지만 종도 간의 화목과 교구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한강 동북부의 최일선 거점으로 그 역할을 다해 달라. 스님이 지금껏 수행정진과 교구화합에 매진해 와 종단의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진산식에는 봉선사 조



실 월운 스님, 회주 밀운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조계종 원로위원 월서, 해승, 종하, 압도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기춘 민주당 국회의원 등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봉선사는 진산식에 화환 대신 자비의 쌀 108포대를 모아 남양주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법상종 제3회 아파타구신 도량제

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11월 4일 천안 봉선 흥경사 주차장에서 '제3회 봉선 흥경사 아파타구신 도량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무원장 해월 스님, 천안 각원사 대원 스님, 송용삼 성환문화원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봉선 흥경사는 고려 현종이 아

비안종의 뜻을 받들어 국내민안 도량제를 7일 동안 봉행한 법상종 국찰이었다.

해월 스님은 "법상종의 불교문화 중흥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흥겨운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031)677-9950 노덕현 기자

붓다자비봉사단 창립 기념 법회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산하 국제붓다자비봉사단(총재 목탁)은 11월 3일 마포 롯데시티호텔 연회장에서 여성분과 창립 2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재 목탁 스님(미안마문화원 원장), 비구니 회장 보현 스님, 호법부장 진성 스님, 불자가수회 회장 너훈아 씨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목탁 스님은 김천대 회장을 비롯한 봉사단 회원들에게 임

명장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봉사활동에 감사하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여성분과는 창립 이래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불서보급과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는 미안마 어려운 불자를 위해 무료기술교육대학 설립을 위한 지원과 극빈층 우물파기 운동 등 봉사활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02)733-5665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서울동부교구총무원장 이·취임 법회



일시 : 2011년 11월 18일(금요일) 11시
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법륜사 3층 대불보전 (종로구 사간동 112번지)
문의 : 02)739-3450 / 010-3722-3418

신임 제7대 서울동부교구총무원장 지성 스님

- 1969년 충담스님을 은사, 정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목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 수지
- 태고종 제5,7,8대 중앙총회의원, 총무원 재무, 사회, 사정, 총무 부장 역임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한국종교협회 이사 및 감사 역임
- 현 서울 승가사 주지 / 現 호명산 감포사 주지

<역대 총무원장>

- ◇동부본원
- 제1대 : 승가사 총담스님 · 제2대 : 용운사 만운스님(전 선암사주지)
- ◇동부교구총무원장
- 제3대 : 안정사 벽파스님 · 제4대 : 관음사 보산스님
- 제5대 : 안정사 백우스님 · 제6대 : 불국사 법선스님